



해외양돈뉴스

- 홍 보 부 -

일본 경기침체로 돼지가격 하락, 수입물량 줄어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경기침체 및 돼지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돼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량도 '97년 7월에는 123,039톤이던 것이 8월에는 69,890톤, 9월은 57,806톤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돈가는 동경 시장 기준 지난 '97년 10월 17일 385엔으로 가격안정대 이하로 하락한 이후 10월 28일에는 342엔까지 폭락했다. 일본에서의 돼지 가격하락은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출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대장성은 지난 '97년 9월 수입 돼지고기 및 쇠고기 등의 긴급 조정관세조치(SG) 기간에 수입된 물량이 돼지고기 5만7천8백6톤, 냉장쇠고기 2만7천2백75톤, 냉동 쇠고기 2만7천2톤 이었다고 발표했다.

대만 3개 지역에서 돼지 구제역 또다시 발생

대만에서 돼지 구제역이 또다시 발생했다. 대만 농업부는 지난 '97년 12월 10일 대만 서부와 중부, 남부의 양돈장에서 6일부터 10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구제역 발생이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은 중부 타이쑹의 한 사육장에서 구제역에 걸린 돼지 30마리, 서부 힌추의 사육장에서 49마리, 남부 강산의 사육장에서 1백32마리를 각각 도살했다. 대만 농업부는 모든 양돈장에 대해 예방접종을 하도록 촉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돼지를 옮기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했다.

이에 대하여 농림부는 축산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대만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시·도에서는 가축방역관 예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미국 모든 유산 폐사 증후군(SAMS) 신종 질병 발생

미국 양돈업계에 신종 바이러스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미국산 종돈수입시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돈유사폐사증후군(Sow Abortion and Mortality Syndrome, SAMS)이라 불리는 이 질병은 아이오와주, 일리노이즈주, 네브라스카주, 콜로라도주, 미네소타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타코타주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SAMS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양돈업계는 2년간에 걸쳐 양돈자조금의 많은 부분을 SAMS의 원인규명에 투입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SAMS에 대한 진단방법이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미국산 종돈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이에 대한 검역이 불가능해 미국산 종돈선발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SAMS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새로운 PRRS 바이러스 균주로 여기고 있으며, 임상증상도 PRRS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PRRS 백신을 접종한 농장에서도 이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PRRS 바이러스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버크셔중, "Berk Gold"마크 부착 실시

미국 버크셔 품종협회는 버크셔 품종의 품질을 보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버크셔중은 최근 돈육의 맛을 가늠하는 육질이 가장 우수하여 매년 등록두수가 32% 늘어나는 등 많은 인기와 관심을 끌고 있다. 버크셔 품종협회는 버크셔 돼지 생산자가 신청을 하면 도축장에서 PE Zoogen 회사가 개발한 DNA 테스트 키트로 버크셔 입을 확인한다. 확인된 돼지고기는 협회가 보증하는 "Berk Gold" 마크를 부착하여 슈퍼에서 판매될 수 있다.

1/4분기 도축량 7% 증가 예상, 돈육가 폭락 할 듯

'97년 4/4분기부터 늘기 시작한 미국의 돼지 도축물량은 올해 1/4분기까지 이어져 이 기간중 돈육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7%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Livestock report'에 따르면 미국의 '97년 4/4분기 도축두수는 지난해보다 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100파운드당 돈육가도 지난 '97년 9월보다 \$5이상 하락한 \$45를 나타냈으며 도축두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97년 8월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도매기준 삼겹살과 안심값은 내년 1/4분기까지 이같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스미스필드사 기록적인 수익증가

미국의 2대 돼지고기 패커인 스미스필드사는 '97년 2/4분기 평가에서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97년 9월과 10월 사이에 신선 돼지고기 판매가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미스필드사는 '96년

기준으로 IBP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돼지를 처리한 회사이며 신선돈육과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있다.

게이스육 판매, HMR 등 다양한 생존전략 모색

미국의 식육 소매업소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소비자들의 의식변화를 기초로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육류수출협회(MEF)가 지난 '97년 11월 19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한 '미국산 육가공품 세미나'에서 미국 JOINSONVILLE FOODS사 Thomas M. Danneker 이사는 미국 식육업계의 새로운 현상으로 Calcgory Managemcni(카테고리 관리), Ilome Meal Replacement(가정식 대체품 개발), Case Ready Meat(게이스육 판매), Value-Added Products(고 부가가치 상품개발) 등을 소개했다. 카테고리별 관리란 유통업자나 공급업자가 거래처를 전략적 사업단위, 즉 소매업소, 식당, 단체급식 등으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고객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마케팅 방법을 말한다. 또 HMR은 요리를 싫어하는 소비자들을 대신해 소매업소가 다목적 즉석식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단순히 고기만을 파는 대신 양념육을 개발한다거나 조리된 고기를 판매, 소비자는 집에서 바로 데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65%가 시간이 없거나 요리하기가 싫어 외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 식육 소매업소의 이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육류에 방사선을 이용한 살균처리 허용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일 쇠고기를 포함한 적색육에 코발트-60 감마선을 이용한 저준위방사선 처리를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FDA는 쇠고기, 양고기 등 적색육에 오염되어 있을지

도 모를 대장균과 같은 유독성 박테리아, 기생충 등을 제거하기 위해 가공과정의 최종단계에서 낮은 단위의 감마선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DA의 마이클 프라이드먼 국장 대리는 이러한 방사선 조사로 고기에 방사능이 잔류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고기의 맛과 색, 그리고 영양소 같은 기본적인 성분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닭고기 등 가금류와 돼지고기, 과일, 채소류 등에 대해 저준위 방사선 조사처리가 허용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방사선 조사 처리된 식품의 구입을 꺼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 소비자 단체들이 반대하고 널리 이용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 돼지 사육두수 25% 감축 방침

네덜란드 정부는 최근 돼지 총 사육두수를 25%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불만을 가진 양돈 생산자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면서 감축 기간의 연장 등을 포함한 대체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돼지 사육두수 25% 감축은 2단계로 나눠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1단계는 '96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2000년까지 15%의 돼지를 감축하고, 그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조속히 시행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 이후에 나머지 10%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 법안에서는 질병 만연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가축애호 및 환경위생대책에 크게 개선을 보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돼지두수 감축률의 일부 또는 전부(25%)를 면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서 양돈생산자단체(LTO)와 가축·식육단체(PVA)는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에 큰 타격이 있다고 보고, 사육두수 15% 삭감을 2010년까지 늦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항생제 사료첨가 금지 검토

유럽연합(EU) 농업담당 집행위원 프란츠 피순러는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면 결국 사람에게 내성을 갖는 병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에 따라 이에 대한 금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97년 11월 19일 밝혔다. 15개 EU 회원국 중 현재 사료에 항생제 첨가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2개국이다.

티 본 스테이크 등 판매금지

유럽연합(EU) 과학자들은 10일 "광우병"사태가 발생한 모든 EU회원국에서 티-본 스테이크와 기타 뼈에 붙은 쇠고기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EU 집행위원회에 자문하는 여러 과학위원회를 통합하는 한 조정위원회는 앞서 영국이 '97년 12월 16일 부터 뼈에 붙은 쇠고기의 판매를 금지키로 결정한데 뒤이어 이같이 권장했다. 영국은 최근 새로운 연구결과, 인간에게 나타나는 광우병 증상인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CJD)이 소의 뼈 및 골수를 통해 전염될 약간의 위험성이 있음이 밝혀진 후 뼈에 붙은 쇠고기의 판매를 금지했다.

만일 EU회원국 정부들이 이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영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광우병이 발생한 바 있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및 포르투갈 등지에서 티-본 스테이크와 뼈에 붙은 쇠고기 판매가 금지된다.

돼지가격 하락세 지속될 듯

EU의 도축돼지 가격이 지난 10월초부터 계속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98년 1월 1일 이후 네덜란드의 돼지 콜레라 규제 조치가 완화되고 EU 전체적으로 번식용 암돼지 수요가 증가하는 여파가 보다 분명해지면서 가격낙폭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시장에서는 E등급 돼지 가격이 '97년 10월 초 이후 14% 하락했고,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도 16%의 하락세가 나타났다.

중국 심각한 가뭄으로 옥수수 생산량 격감

중국은 올해 심각한 가뭄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작년의 1억2,700만톤에서 1억톤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량 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시즌초 중국은 옥수수 재고량이 많았기 때문에 '98년도 수입이 크게 증가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의 국내 곡물이나 육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옥수수를 사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일단 재고량이 고갈되면 내년 시즌 수입규모는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중국 옥수수 시장전망이 불확실해지자 중국 시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세계 옥수수 시장의 '98년도, 나아가서는 '99년도 전망도 불확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경우 국내 옥수수 생산이 부진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만의 경우 구제역의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남아시아를 뒤흔들고 있는 통화위기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옥수수 수요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덴마크 돈콜레라 방지 위해 농가 직접 돼지수출 금지

덴마크 돈육수출기구연합(DS)의 스토고드국장은 최근 일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덴마크는 돈콜레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외국에 돼지를 수출할 경우 농가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전염병 감염 방지를 위해 돼지를 취급하는 업체들은 모두 수의국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우제류 동물의 이동상황을 전부 기록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이나 네덜란드로 자돈 등을 수출할 때 돈콜레라가 국내에 들어올 위험이 높기 때문에 농가로부터의 직접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출할 경우에는 지역수의사가 상시 직접감시하고, 정부가 인가한 적재장소에서 만 돼지를 상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돼지 중간상인들에 의해 전염병에 감염된 돼지가 타 지역으로 팔려나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정책인 것 같다.

호주 식육축산공사(AMLC)와 식육연구공사(MRC) 통합

호주 정부는 지난 '97년 3월 식육관련단체를 재편키로 하고 식육산업 평의회를 해산함과 동시에 기존의 분야별 단체를 재조직, 생산자의 과징금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연구개발을 단일화하는 민간회사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호주식육축산공사(AMLC)와 식육연구공사(MRC)가 발전적으로 통합, 내년초 MLA(Meat and Live-stock Australia)로 출범하기로 했다. 외신에 따르면 MLA의 예산은 AMLC/MRC의 1억달러에서 대폭 삭감, 6천만 달러 안팎에서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상당수의 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정부는 당초 식육·축산관련 단체를 통합하면서 패커와 생체 수출업자들로부터 자금을 기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었으나 패커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LS의 자산과 예산 등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짓지 않은 만큼 각 분야별로 다양한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養豚**